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큰 보자기에 율법대로 하면 깨끗하지 않아서 먹는 것이 금해져 있던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세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거하는 집에 도착했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 가라고 지시하셔서 베드로가 야벳족 계통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여, “28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행 10:28-29).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하며(10:34-35),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말씀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 사실에 놀란 베드로와 함께 갔던 여섯 형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10:44-48).

4. 이방인 전도에 대한 예루살렘교회의 변화(행 11:1-18)

예루살렘 교인들 중 할례 시행을 고집하는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비난하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된 과정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다 설명하고(11:1-16),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11:17)하자,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며 받아들였습니다(11:18). 이렇게 하여 그들의 유대주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문화의 벽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데서(11:19),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변화가 생겼고(11:20),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결과로 생긴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첫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생각의 틀인 사고의 변화는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사도들이 인도하던 정통적 교회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유대주의적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종족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을 향하여 전도 문을 넓혀가는 데에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다른 종족/문화 속으로 전파되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의 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열린 교회의 열린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사람들!”